

류지안의

AI 프롬프트 노트

AI로 직접 실험한 기록을 공유합니다

3

이 일지를 공개하는 이유

New Era Cap 본사 지정 SEO Advisor.

미국 포함 8개국 마케팅 리더십에 컨설팅을 제공했어요.

현대캐피탈,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유니세프(UNICEF).

이런 회사들에 AI 콘텐츠 전략을 가르쳤어요.

3년 넘게 ChatGPT, Claude, Gemini 등 주요 AI를 매일 실전에서 써왔어요.

영어 콘텐츠도, 한국어 콘텐츠도 직접 만들면서요.

YouTube 제목, 세일즈 페이지 카피, 구글 SEO 콘텐츠.

직접 테스트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잘 된 것, 안 된 것, 놀라웠던 것.

전부 그대로 정리했어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험 일지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실험 1.

ChatGPT vs Claude

YouTube 제목, 어느 쪽이 더 클릭될까요

언제 했나요:

YouTube 영상 제목을 매번 직접 쓰다가

AI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ChatGPT와 Claude에게 똑같은 영상 정보를 주고

제목 5개씩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ChatGPT는 정보 전달 중심의 제목을 잘 만들어요.

"2024년 구글 검색 최적화 완벽 가이드" 같은 스타일이요.

키워드가 명확하고 구조가 좋아요.

Claude는 감정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제목에 더 강해요.

Claude 스타일로 만든 제목으로 업로드했더니

한국어 유튜브 시장에서 클릭을 만드는 건 이쪽이에요.

실제 결과:

Claude 스타일로 만든 제목으로 업로드했더니

13시간 만에 구글 검색 1위, 유튜브 1위를 동시에 달성했어요.

실전 팁:

ChatGPT 제목이 더 나은 경우도 있었어요.

정보성 키워드를 타겟으로 할 때는 ChatGPT가 더 정확했거든요.

지금은 제 스타일에 맞게 만든 AI 시스템으로 제목을 뽑습니다.

제가 쓴 프롬프트 (복사해서 쓰세요)

아래 YouTube 영상의 제목 후보 5개를 만들어줘.

영상 주제: [주제]

타겟 시청자: [시청자 설명]

영상 핵심 내용:

- [포인트 1]
- [포인트 2]
- [포인트 3]

조건:

-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감정이 있어야 함
-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
- 과장하지 말 것
- 각 제목마다 "왔 클릭할지" 이유 한 줄도 같이 써줘

실험 2.

내가 쓴 글 vs AI가 쓴 글

온라인 강의 세일즈 페이지로 실험

언제 했나요:

온라인 강의를 팔 때 세일즈 페이지를 직접 썼어요.
며칠 뒤 같은 내용을 ChatGPT에게 다시 쓰게 했습니다.
두 버전을 비교해봤어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ChatGPT 버전이 구조적으로 더 좋았어요.
도입, 문제 제시, 해결책, 증거, CTA 흐름이
제가 쓴 버전보다 훨씬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ChatGPT 버전은 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읽는 사람이 어딘가 어색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최종적으로 찾은 방법:

ChatGPT가 잡아준 구조 → 제가 다시 제 언어로 쓰는 것.

이 방법이 혼자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 3배 빨랐고,
AI만 쓰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실전 팁:

AI가 카피를 대신 써주지 않아요.
AI는 제가 더 빠르게 쓰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쓴 프롬프트 (복사해서 쓰세요)

아래 제품의 세일즈 페이지 카피 초안을 써줘.

제품: [제품명]

타겟 고객: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고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핵심 문제 1가지]

제품 포함 내용: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격: [가격]

구조:

1. 공감 (고객 현재 상황 묘사)
2. 전환 (해결의 실마리)
3. 제품 소개
4. 이런 분께
5. 가격 + CTA

조건:

- 과장하지 말고.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만.
- 구조만 잡아줘. 세부 문장은 내가 내 언어로 다시 쓸 거야.

실험 3.

AI로 만든 콘텐츠 가이드

브랜드 스타일로 글을 쓰게 만들 수 있을까?

언제 했나요:

"AI 콘텐츠는 검색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AI를 사용해서 YouTube 영상을 기획하고,
스크립트 초안을 잡고, 제목을 뽑았어요.

브랜드 스타일로 글을 쓰게 만들 수 있을까?
설명란도 AI 도움으로 작성했습니다.

결과:

업로드 13시간 후:

구글 검색 1위, 유튜브 검색 1위 동시 달성.

업로드 4일 후:

다른 영상 2개도 타겟 키워드 유튜브 1위.

블로그 포스트:

타겟 키워드 구글 3위.

무엇을 발견했나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보다 빠르게 초안을 잡아줄 뿐이에요.

상위에 오른 이유는 AI를 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키워드를 타겟으로 할지,

시청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지를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AI는 그 판단을 실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실전 팁:

AI만으로는 안 돼요.

제 판단이 핵심이었고,

AI는 그 판단을 빠르게 실행하게 해줬어요.

제가 쓴 프롬프트 (복사해서 쓰세요)

아래 YouTube 영상의 SEO 최적화 설명란을 써줘.

영상 제목: [제목]

영상 핵심 내용:

- [포인트 1]

- [포인트 2]

- [포인트 3]

타겟 키워드: [키워드 1], [키워드 2]

조건:

- 첫 2줄은 시청자가 클릭하고 싶어 하는 문장으로

- 나머지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한 정보 위주

- 전체 150-200단어

- 타임스탬프 자리는 [타임스탬프]로 표기해줘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실험 3개, 그리고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3개를 공유해 드렸어요.

오늘 바로 하나만 써보세요.

완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복사해서 넣고, 결과 보고, 수정하면 돼요.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AI한테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해요.

문제는, 쓸만한 답을 받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해요.

뭘 물어야 할지 모르니까,

매번 빈 화면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실전에서 쓰는 프롬프트 30개를 정리했어요.

콘텐츠, 이메일, 기획, 의사결정, 제품 설계, 일상 업무까지.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대괄호] 안만 내 상황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 혼자 일하는 사람의 AI 프롬프트 30 보러가기

jianryu.kr/solo-prompts

류지안

jianryu.kr